

# 남산 자유센터 재활성화를 위한 근대건축 재생사례 고찰

## A Case Study of Renovated Modern Architecture for Regeneration of Namsan Free center

○신신성\*                      장한두\*\*  
Shin, Shin-Shung              Jang, Han-D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monumental property and established background about Namsan free Center. And find out regeneration guide of Namsan free Center through regeneration examples of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재활성화, 남산 자유센터, 근대건축, 사례연구  
Keywords : Regeneration, Namsan free Center, Modern Architecture, Case study

(정인하, 2000)

### 1. 서론

남산 자유센터의 건립배경과 기념비적 특성을 고찰 후 서울시의 정책과 근대건축의 활성화 사례를 통해 가치를 보존하는 계획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남산자유센터의 건립배경과 기념비적 특성

#### 2.1 건립배경과 배치 특성

1960년대는 박정희 정부시기로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냉전체제와 이념대립이 컸던 시기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정세와 집권의 타당성을 위해 반공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었으며 196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반공연맹 총회에서 한국을 아시아 반공의 성지로 만들자는 결의가 수립 되면서 자유센터 건설이 결정된다.

자유센터는 공공성과 기념비성을 확보하는 건축의 기본 문법인 대칭, 반복, 축 구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 김수근의 초기 스케치와 배치도를 보면 자유센터 본부, 국제회의장, 숙소 3개 건물 외에 전망대, 추념탑이 계획되어 있다. 선형 축을 따라 배치되도록 타워인 숙소는 측면에 비껴서 있다. 경사지형이어서 축 선상의 건물들은 계단에 접하여 조금씩 상승하며 추념탑은 경관적 초점 역할을 한다.

#### 2.2 남산자유센터에 조형적 특성

박정희 정부의 반공이념과 권력을 주로 표현했으며 6.25전쟁 이후에 베트남 파병이 있던 시기로 반공이념은 박정희 정권을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자유센터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성전을 구축하는 의미로 지어져 실제 기능보다 기념비적 성격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매우 과장된 스케일로 설계하여 곡면의 지붕아래에서면 마치 권력에 복종을 강요하는 느낌을 받게된다. 이런 효과를 위해 김수근은 건물의 주요 파사드와 주 접근 방향이 서로 다른 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여기에 건물에서 길게 뻗어나온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곡선의 열주들은 매우 과장된 스케일로 회랑을 형성하며 건물 중앙의 계단도 권위적인 면을 강조하는 모티브이다. 또한 건축의 구성이 건물, 운동장, 사이인 긴 계단의 세 단계로 구분되어, 여기서 행사 운동장의 사람들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 위압감을 느끼는 효과를 갖는다. (정인하, 2000)

### 3. 남산자유센터의 보존적 가치

알로이스 리글(Alois Rigel)은 근대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적 가치는 역사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 갖는 의미로 정해질 수 있다.” 라고 하였다. 문화재가치가 생성 당시 주어지는 특성, 특징에 의한 것이 아닌 받아들여지는 의미에 근본적인 가치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 전북대 대학원 석사과정  
\*\*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jeon-buk University, jang@jbnu.ac.kr)

즉, 건축의 가치는 단지 생성 장치의 목적이나 의미가 아닌 현재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에서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은 건립 당시의 모습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때 당시의 가치에 의래 지속적인 변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의 가치가 계속 더해져서 당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성에 근거한 역사적 의미까지 지닐 수 있게 된다. (이성호, 2011)

남산 자유센터는 근대 건축물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접미한 이념대립에서 나타났던 반공, 독재정권의 권력의 역사적, 문화적 기록이다. 자유센터는 1960년대 시대 안에서 도시의 기억과 사회성, 역사성,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시간과 만나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남산자유센터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버린 한국 자유연맹의 사무실과 물류센터의 창고로 쓰이고 있다. 과거가 역사와 문화가 갖는 자유센터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재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4. 서울시의 정책

##### 4.1 서울시의 비전과 지역활성화 정책

서울시 비전2030의 4개의 부문의 달성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글로벌 선도도시 부문에서 세계 5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금융, 문화, 관광, 창업에서 각각 5대도시 그리고 R&D도시에서 3대 도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4대 전략목표 중 하나인 감성 문화 도시라는 목표를 위해서 서울의 역사문화를 복원해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며 공공공간 300개를 발굴해 쉽고 치유가 있는 감성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등의 핵심정책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2021)

##### 4.2 서울시 중구 필동, 장충동 생활권 계획 2030

필동과 장충은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보행중심의 문화거리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자원 중심의 특화가로를 조성하여 도보관광 자원을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화가로의 내용은 동국대 승정전, 장충단공원(장충단비), 구 남산 자유센터, 조택원 춤비, 김용환 지사상에 이르는 역사자원과 스토리에 기반 하여 역사문화중점가로를 조성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역사자원 활용도 또한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역사자원보존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특성별로 활용하고 관리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2024)

##### 4.3 서울시 정책과 남산 자유센터의 재활성화

서울시는 감성문화도시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역사와 문화 복원을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장충의 생활권계획에서 승정전, 남산자유센터, 국립극장을 축으로 하여 역사문화중점 가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산자유센터의 적절한 개보수는 역사중점 가로를 활성화 시키고 자유센터 인근의 국립극장, 국립극장공연예술박물관, 장충단 공원 등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재활성화는 장충지점의 활성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인근 근대문화유적과 시설군은 공연장(국립극장), 박물관(국립극장공연예술박물관), 호텔(반얀트리호텔), 스포츠시설(골프장, 테니스장)- 반얀트리호텔 부속, 서울클럽(스포츠시설)등이 있다. 자유센터의 프로그램을 도서관과 미술관을 가지고 접근할 경우 공연장과 박물관과 연계하여 복합 문화시설 군을 조성할 수 있으며 반경 2km 서울시의 시립 미술관이 부재하다는 측면과 서울시 비전2030의 공공 공간 300개 발굴의 정책적인 측면에도 부합하다. 따라서 자유센터를 도서관과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국내.외의 재활성화

##### 5.1 매사추세츠 클레어 T. 카니 도서관

1972년에 매사추세츠 대학 다펀스 캠퍼스에 폴 루돌프의 브루탈리즘 건축인 클레어도서관이 준공된다. 1960년부터 루돌프는 대학 건립의 총괄 마스터플랜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루돌프는 건축이 개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결 시킴으로써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은 다펀스 캠퍼스와 도서관 건물의 설계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기존에 준공된 낡은 설비시스템과 새롭게 요구되는 프로그램 공간으로 도서관은 증축과 리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재활성화의 설계를 만든 집단은 보스턴에 기반을 둔 건축 집단 디자인랩으로 2013년에 설계를 했다. 그들은 도서관의 건축적 프로그램이 이러한 루돌프의 이상을 가장 극명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의 디자인 접근은 루돌프의 이상을 계승하되 과거와는 달라진 21세기의 교육환경에 맞추어 학생들의 다양한 접촉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다학제간 협업의 공간을 제공하여 캠퍼스의 허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디자인랩은 기존 건물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루돌프의 초기 작품을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연구함으로써 그의 건축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는 루돌프의 도서관 같이 중요한 보존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작업에서, 그 보존과 계승이 대상이 구체적 형상으로 남겨진 건축의 물리적 실체이기보다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건축가의 철학과 이념 같은 비물리적 대상임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원래의 모습 (1962)      재 활성화후 모습 (2013)

디자인 랩은 기존공간에 대해서 적극적 물리적 변형을 통해 소통과 상호작용의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재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메인 로비를 분절하고 있는 내부 벽체를 제거해서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로 통합하고, 캠퍼스의 외부조망이 펼쳐지는 개방감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하고 자하였다. 또한 상당 부분의 기존 콘크리트 파사드를 철거하고 도서관 서가의 배치를 조정하여 풍부한 자연채광이 내부공간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밝고 활기찬 소통의 공간을 형성한 것이다. 수평적인 증축을 통해 기존에 외벽이었던 콘크리트 구조체는 내부공간에 포함시켰으며 외벽에 유리커튼월을 설치하였는데 커튼월을 통해 내부로 깊숙이 빛이 유입되게 하였다. 유입되게 되는 빛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콘크리트 마감에 다양한 음영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를 통해 루돌프의 콘크리트 미학과 물성이 공간의 사용자에게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클레어 도서관의 재활성화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생활을 중첩시키고 도서관의 공간을 물리적으로 확장을 넘어서 다층적으로 시간의 쉼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용현, 2017)

남산자유센터와 클레어도서관의 건축 시기는 전후시대인 1960년에서 1970년으로 브루탈리즘의 건축양식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이다. 브루탈리즘은 중력에 저항하는 과장된 캔틸레버, 거대한 스케일, 구조체의 노출 등이 포함되는데 주로 노출 콘크리트마감을 외장으로 사용하였다.

김수근의 남산자유센터도 국내에 몇 되지 않는 브루탈리즘 양식의 건물이다. 클레어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브루탈리즘에 대표적인 조형요소는 그대로 두되 수평적인 증축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필요한 기능을 충족시키고 김수근이 나타내고자했던 노출콘크리트의 물성을 공간의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한옥을 선화시켜 조형으로 나타내고자했던 남산자유센터의 구조체 또한 보존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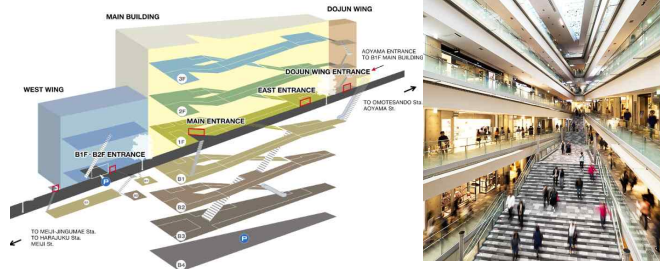
## 5.2 도쿄 오모테산도힐스

도쿄 지하철 하라주쿠역과 오모테산도 역을 연결하는 번화가로써 2006년 2월 250m의 폭으로 재개장하였다. 오모테산도힐스의 재활성화 전에는 1927년 세워진 도준카이 아오야마 아파트가 있었다. 아파트 상층부에서는 일반 주거 공간이외에도 예술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었고, 저층부는 지역의 명소로 꼽히던 뷰티크, 뮤지엄, 액서사리가게, 디자인 회사등이 있었다. 지역의 명소로 인식되던 아파트였으나 노후화되어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2000평의 대지에 지하3층, 지상 3층의 상업시설과

38호의 주택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리모델링되었다.

오모테산도 힐스는 서관, 본관, 도준칸의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250m의 연속된 건물의 파사드를 구성하여 건물의 파사드가 길어지고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가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재활성화를 하면서 아트리움과 아트리움을 둘러싼 램프를 추가로 설계하였는데 이 아트리움은 지상3층부터 지하3층까지 자연광을 들어올수 있게 하여주어 건물내부에서도 보행자가 아트리움의 램프를 통해 보행을 하며 보행을 즐길수 있게 해준다.



오모테산도 힐스의 구성

아트리움의 모습

재활성화의 설계자는 안도다다오였는데 조합시행방식으로 진행하여 100명이 넘는 권리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재활성화를 하였다고 하며 9년에 걸쳐 협의와 공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와 설계의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안도다다오는 과거와 현재를 풍경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3가지 원칙으로 설계하였는데 첫째는 모든 건물의 높이를 느티나무 가로수의 높이 이하로 억제할 것, 둘째, 파사드는 가능한 한 상업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차분하게 표현할 것. 셋째, 양쪽 가장자리 2개동만은 어떤 형태로는 옛 건물 그대로 남길 것으로 세 번째 제안은 2개동은 과거를 현재에 전하는 기념비라는 의미를 담아 계획했다. 오모테산도 힐스는 양쪽 가장자리 2개동을 그대로 남기고 중앙에 현대적인 건물을 기존 건물과 높이를 같게 하여 신구 대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원래의 모습

재 활성화후 모습

오모테산도힐스의 시사점은 노후화된 주거시설을 성공적으로 상업시설로 재활성화하여 활발한 가로를 형성시켰다는 점과 긴시간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하나로 모아 결론을 도출했다는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일부 보존했다는 점 등이다. 남산자유센터의 재활성화 방향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립해야하며 남산자유센터와 인근의 시설들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 5.3 서울역

서울역은 일제가 다른 근대화 시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수탈을 위한 목적으로 1900년 경인철도가 개통하면서 만들었다. 경인선 한쪽 끝은 인천 제물포역이었고 나머지 끝은 서대문역이었다. 지금의 서울역의 전신인 남대문정거장은 서대문역 전에 있었다. 1900년대에 남대문 정거장은 목조 가건물을 사용하여 개통되었고 1910년 경성역으로 개명된다. 1922년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역사의 신축을 추진해 1925년 준공되게 된다.

서울역의 설계자는 도쿄대 건축과 교수였던 쓰카모토 야스시로 추정되며 서울역을 포함한 철도시설과 옛 한국 은행 보관동의 금융시설이 일제 근대화론의 핵심 기반시설이었기 때문에 건물도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는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졌다. (방승환, 2020)



원래의 모습

재활성화후 모습

서울역은 역사적인 공간으로 평가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2009년 현상설계를 진행했으며 당선자는 삼우설계, 금성건축, 아뜰리에17 컨소시엄 이었다. 80년간 기차역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형되어 설계 컨소시엄은 1925년을 복원 기준시점으로 정했으며 각 공간의 중요성, 역사적 의미, 물리적 상황, 현재적 가치, 잠재적 가치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세단계로 나누고 높은 가치를 지닌 공간들은 원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가장 중요한 전시설로 재활성화 하였다. (방승환, 2020)

서울역사의 재활성화는 외관과 내부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의 건축적 가치와 역사성과 민족적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의 장소성의 보존적가치로써 외관은 거의 원래의 모습과 동일하게 보존되었으며 주요성이 높은 공간은 그대로 보존되고 낮은 공간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모습으로 리모델링되었다.

### 6. 결론

남산자유센터는 기념비적인 건물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지 얼마 안 된 군부정권의 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내세웠던 국시인 반공의 기능을 갖는 건물이자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조형으로 몸소 표현한 건물이다. 남산자유센터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건물이자 군사정권의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건물이기에도 보존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남산자유센터는 한국 자유총연맹의 지부와 물류회사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센터의 건립 당시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남산자유센터가 재활성

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남산자유센터의 재활성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비전2030과도 일목상 통하며 구체적인 장층의 생활권계획에서의 보행가로 활성화 사업과도 일치한다. 오모테산도힐스의 사례와 같이 자유센터 주위의 건물군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성화한다면 가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대상이 부여했던 기념비적인 남산자유센터의 조형을 일부 보존하되 현 상황에서는 소규모 사무실의 기능 밖에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형을 보존하며 수평증축을 해야 한다. 브루탈리즘의 건축의 대표특성인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살리기 위해 현재 칠해져있는 페인트를 걷어내고 고압수세척을 통해서 김수근이 의도했던 노출콘크리트와 조형에서 나타나는 선형의 미감을 살려야 한다.

### 참고문헌

1. 강혁, 김수근의 자유센터에 대한 비평적 독해,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논문, 경성대학교 건축학부, 2012
2. 노상완, 공간재생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보존에 관한 연구, 문화와 예술연구 학술논문, 김포대학교, 2017
3. 방승환, 역사(驛舍)와 역사(歷史)의 복합문화공간 : 문화역 서울284, 2020
4. 서울시, 서울vision, <https://mayor.seoul.go.kr>
5. 서울시, 2030서울생활권계획, <https://urban.seoul.go.kr>
6. 안도다다오, 나 안도다다오, 안그래픽스, 2009
7. 이성호, 리노베이션을 통한 근대건축물의 공간 보존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8. 이성호.오인욱,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에 의한 디자인 변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논문,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2011
9. 유용현, 브루탈리즘 건축의 증축을 통한 적응적 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논문,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2017
10. 정인하, 김수근 건축론, 시공문화사, 2000
11. 현대 일본 도시주거는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 <https://protocooperation.tistory.com/467>
12. GO TOKYO <https://www.gotokyo.org/kr/spot/36/index.html>
13. OMOTESANDO HILLS, [https://www.omotesandohills.com/ko/floor\\_map/](https://www.omotesandohills.com/ko/floor_map/)
14. world-architects.com, Claire T. Carney Library, <https://www.world-architects.com/en/architecture-news/reviews/claire-t-carney-library>